

하루를 시작하며



조 미 영
여행작가

지난 몇 달간 여러 나라를 다니며 확연히 다른 역사서술의 방식을 가진 나라들을 보았다. 독일과 일본이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두 나라가 기억하는 역사는 무엇일까?

처음 찾았던 곳은 히로시마다. 1945년 8월 6일 떨어진 원자폭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된 원폭돔을 중심으로 평화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존된 원폭돔은 원자폭탄의 위험을 알리는 상징으로 1996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히로시마 평화공원 곳곳에는 당시

역사를 기억하는 두 가지 방식

희생된 이들을 위한 추모비와 위령탑 그리고 각종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다. 당시의 끔찍했던 현장을 알리고 경각심을 갖고자 하는 의미와 함께 평화를 기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평화 기념관 내부 전시실에는 히로시마의 피폭 이전의 모습과 피폭 이후의 모습을 사진과 판넬 등으로 설명하고 피폭 희생자들의 사연과 함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피폭으로 백혈병에 걸린 사다코가 소원을 빌며 접었다는 종이학과 피폭 당시 자전거를 타고 있던 신이치가 끝까지 잡고 있던 세발자전거까지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들이다. 그러나 어디에도 이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원폭 투하 이전의 일본이 행한 침략과 살상에 대한 이야기는 감춘 채 철저히 피해자의 모습으로 둔갑되어 있다. 물론 당시 14만 히로시마 시민들의 희생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평화를 지

향한다면 객관적인 사실적시와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피폭 희생자로 평생 괴로움을 겪고 계신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현 아베정부의 끊임없는 전쟁야욕을 비판한다. 지옥과도 같았던 당시를 떠올리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전쟁은 지배자들의 역사이지 승전국도 패전국도 일반시민들은 모두 희생자다.

그럼 독일은 어떤가? 베를린 중심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는 ‘유대인학살 추모공원’이 있다. 1만9000㎡의 넓은 부지에 2711개의 콘크리트 비가 세워져있다. 그곳에는 어떤 글도 그림도 새겨져 있지 않다. 방문객들 스스로 보고 느낀 대로 해석하길 원한다. 누군가는 희생자들의 묘지를 떠올리고 누군가는 광기 시대의 암흑을 떠올린다. 연간 수 십 만 명이 지나다니는 시내 한복판이다. 관광객은 물론 일반시민들까지 수없이 스치고 지나며 경각

심을 갖게 한다.

베를린 북쪽 오라니엔부르크에는 작센하우젠 수용소가 있다. 1936년 건립되어 정치범과 유대인들을 수용했던 곳으로 유럽각국의 유대인수용소를 관리 감독하고 살인 기술자들을 배출했던 곳으로 더 악명 높다. 현재 이곳은 인권교육의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나치 시절 자신들의 민낯을 가감 없이 공개하고 반성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다.

독일 기념관들의 특징은 자극적이거나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실 그대로를 올바르게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객관적으로 사실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과거 나치의 파시즘 선동에 호도된 자신들의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평화는 어떻게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할 때 찾아올까? 나 역시 결론대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긴다.

열린마당

AI시대 내 일자리는 안전할까



오 지 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2005년에 신규 공무원으로 입사하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해졌다. 새벽 6시에 학원에서 운전연습을 하고 출근하던 일은 지금도 생생하다.

10년이 지난 지금 길치인 나도 어디든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비게이션은 평범해졌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를 앞둔 시대가 다가오는 등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언젠가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날도 오지 않을까?

앞으로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인공지능(AI)이 상용화 되면 운전기사, 텔레마케터, 제조업 등의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내가 지금 하는 공무원이란 직업조차도 중간상인개념으로 소멸된다

고 한다. 그러면 나는 생계를 위해 어디로 가야하지? 벌써 걱정스럽다. 고용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 2025년에는 현재 사람이 담당하는 일자리 중 71%가 인공지능 로봇 등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가상현실전문가, 빅데이터전문가, 사물인터넷전문가 등과 관련 해선 상당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 즉 창의성이 중요한 분야와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심리상담사 등은 계속 살아남을 것이라고 한다.

직업과 일자리 부문에서도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제주도에서는 도민들이 직업상담 및 직무역량교육을 통해 현명하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자리에 관한 고민이 있을 때 언제든지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고민을 나누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찾아드릴 것이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내년 예산 적극적 확장 편성” 주문

원지사, 주간회의서 강조

○…원회통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7일 “2020년도 예산편성 중점 방향을 투입대비 효과와 도민 체감도에 두고 부서별로 세심한 계획을 세울 것”을 주문.

원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예산편성은 올해 예산 집행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경기가 침체국면일수록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

원 지사는 이어 “내년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부도 경제활력 제고와 미래 성장 동력확충을 위해 확장적 재정을 권장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장, 편성하라”고 당부. 조상윤기자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

○…서귀포시가 제2의 탈북민 모자 비극을 막고자 고위험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10월 31일까지 진행.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서울에서 발생한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을 계

기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연금 지급 중 고위험 가구에 예측된 955가구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정기체납한 63가구가 대상.

시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기가구가 확인되면 긴급복지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등꽃길 하이파이브’ 연출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17일 귀일증을 찾아 ‘등꽃길 하이파이브’를 연출.

도교육청은 “귀일증은 올해 14학급 356명을 시작으로 내년 16학급 418명, 2024년도 20학급 52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교 현안을 논의하고 사립학교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설명.

이 교육감은 이날 김성룡 귀일증 교장에게 “다른 학교에서 ‘하이파이브 데이’를 실시해 즐거운 학교현장을 만들고 있다”며 “적극 운영하기 바란다”고 제안. 표성준기자

사설

애기 울음소리 점점 끊기는 저출산 심각

제주에서도 애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내 합계출산율이 감소추세인데다 산모의 출산연령도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 5000명대가 무너졌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호남·제주 출생 현황 및 분석’ 자료를 보면 저출산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4781명으로 전년(5037명)보다 256명이 감소했습니다. 출생아 수가 최고점을 기록했던 2012년(5992명)에 비하면 1211명이나 줄어든 겁니다. 제주지역 연간 출생아 수가 5000명 이하로 떨어진 것은 1981년 월별 통계가 작성된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가임기간 출산예상 평균 자녀수)은 1.22명으로 전년(1.31명)보다 감소했습니다. 도

내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역시 2008년 10.0명에서 지난해 7.3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산모들이 첫째아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도 2016년 1.62년, 2017년 1.77년, 지난해 1.93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주지역의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큰 일입니다. 현재 추세라면 머지않아 제주인구의 자연증가가 멈춰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6월의 경우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322명이지만 같은 달 사망자 수는 317명입니다. 자연증가가 5명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제주인구의 자연증가 마이너스 시대를 우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생산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등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낳고 안심하게 키울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신중해야 할 일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일몰을 앞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으로 제주도가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제주도만 하더라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39개소에 이릅니다. 당장 내년에 일몰 도시공원은 27개소, 2021년 7개소, 2022년에는 2개소가 해당합니다. 도시공원 매입에는 지방채 발행 등 총 891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도가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입니다. 이 방식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부지를 매입,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개발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도는 우선 2021년 8월 일몰예정인 오등봉공원

(76만4000㎡)과 중부공원(21만4000㎡)을 민간특례 개발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도심 평면적 확산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주민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공원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도심의 허파와도 같습니다. 난개발로부터 도심 녹지축을 확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성급한 결정보다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재정부담만을 내세우는 일방 추진보다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공 개발방식 도입이나 트러스트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선택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몰 도시공원 매입에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 고

현동헌(해비치C·C 근무) 아버지
연주현공 두식(前 제주시교육지원청
시설관리과장)께서 서거 2019년 9월
16일 오후 7시 04분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8일(수)
▶발인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7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3층)
▶장 지: 연동선영

부 인 강 신 순
아 들 현 동 헌
동 윤
며 느 리 정 수 연
지 연
손 녀 현 다 은
채 은

※ 연락처 : 강신순 010-3697-7720
현동헌 010-9548-7721
현동윤 010-4489-7720
정수연 010-9487-2246
지 연 010-6792-0301

분다葬 公告

사단법인 분다클럽 반야회 故
현두식회원께서 서거 2019년 9월
16일 오후 7시 04분경 향년 63세로
별세하셨기에 아래와 같이 永訣式을
분다장으로 거행함을 삼가 알려
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8일(수)
▶발인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6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층
3분향실
▶장 지: 제주시 연동 선영

■장례위원장 : 김태문 총회장
■장례위원회
김영식 직전총회장 조건형 차기총회장
고석만 감사 고재현 감사
강규진 내부부회장 박형명 외부부회장
장승남 부회장 문재식 부회장
강진모 부회장 정삼천 부회장
고성열 부회장 임계령 부회장
김완수 백목회 회장 오진선 한라회 회장
백상훈 영주회 부회장 양행진 천지회 회장
강성남 탐라회 회장 한정권 반야회 회장
한성훈 정방회 회장 이대복 금강회 회장
오희부 사무총장
■장례준비위원장 : 김시범 반야회 직전회장
임호진 반야회 사무국장

사단법인 분 다 클 럽
총회장 김 태 문 합장
※ 연락처 : (사)분다클럽 사무실 751-1080

부 고

오아름 아버지 동복오공 종암
(토암건설기계 대표·향년 59세)
께서 서거 2019년 9월 17일 11시
46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
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9월 18일(수)
▶발인일시: 2019년 9월 19일(목)
오전 7시 1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한울누리공원

딸 오아름 형 님 오종민
오아현 누 나 오정숙
동 생 오종현
회용
회숙
수영

※ 연락처 : 오아름 010-9978-5427
오아현 010-8910-5803
부민장례식장 742-5000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평규
(향년 100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
여 마음속 깊이 감사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9월 18일
아 들 김정일 며느리 김월자
김재경 김재필 박은진
김재필 최금란
김형기 고군자
딸 김영옥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문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동생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아름다운 마지막 동행
하귀농협장례식장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405 (노형에서 10분 거리)
노형에서 10분 거리
● 독립적인 5개의 고품격 분향실
● 독립적인 상주휴게실 및 편의시설
● 하귀농협직영 합리적인 장례비용
● 동시주차 500여대의 넓은 주차장
● 타 장례식장 대비 저렴한 식비 (6한제공)
● 하귀농협 하나로마트 직영점 운영
● 노형에서 10분거리 (대중교통이용가능)
24시간 무/료/상/담/실/시 24시간/대기
T.798-8800